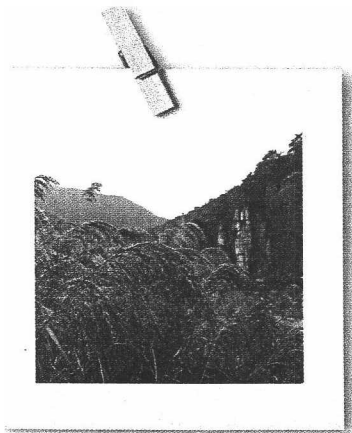


# Contents

등급정보 365+ \_ 2009 November Vol.159

- 02 \_ 칼럼  
難兄難弟(난형난제)
- 04 \_ 기획특집  
가족분노 자원화 향후 전망
- 06 \_ 전문가 심층정보  
반식간격 단축과 경제성
- 08 \_ 농가탐방 - 소  
전국 최고의 고급육생산 기초를 다지다  
범당골 농장-신갑섭 농가
- 09 \_ 농가탐방 - 돼지  
육질개량 우수농장을 가다.  
현구농장-이강훈 상무
- 10 \_ 등급정보 - 소
- 15 \_ 등급정보 - 돼지
- 18 \_ 등급정보 - 닭고기
- 19 \_ 등급정보 - 계란
- 20 \_ 에세이  
추억을 찾아 떠나는 여행
- 21 \_ 쇠고기 이력제 / 지역축산소식
- 23 \_ 등급판정소식 - 본부



‘가을 강가에서’  
충북지역본부 강인수 출장소장작

## 칼럼



한국육가공협회 김실중 부회장

# 難兄難弟(난형난제)

◎ 혹자는 축산물등급판정(1차 가공)과 축산물육가공사업(2차 가공)은 축산물이라는 같은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즉, 1차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올리면 2차 육가공산업은 원료가 아무래도 비싸게 공급될 수밖에 없어 부담이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금과 우산을 파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의 옛말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맑은 날은 소금장수 아들이 돈을 벌고 비오는 날은 우산장수 아들이 돈을 벌듯이...

우리 축산인이 애써 생산한 축산물을 1차로 등급판정을 하여 등급이 높은 품질이 좋은 부위는 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전·후지 같은 저지방부위 등을 2차 육가공산업으로 소진하는 형태는 축산물소비에 관한 가장 효율적인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축산농가의 전방산업은 등급판정사업 및 육가공산업입니다. 따라서 등급판정사업과 육가공산업은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축산농가의 난형난제인 것입니다. 등급판정은 궁극적으로 축산물의 고급화를 촉진하는 것이며 육가공산업은 남김없이 소진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이전 형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를 보면 ‘공정한 판정! 신속 정확한 정보! 친절한 서비스!’를 모토로 전 직원이 열심히 맘을 흘

리며 일한다는데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정한 판정** : 지금까지 공정한 판정을 위해 노력했던 등급판정소는 쇠고기이력제 실시와 더불어 이력제 관련 샘플을 전량(도축되는 전두수 시료확보) 보관하고 있어 공정에 이의가 있으면 바로 재검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정보** : 등급결과를 인터넷은 물론 핸드폰으로 신속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친절한 서비스** : 얼마나 친절했으면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에서 2006년 1위에 이어, 공공기관에서 우수기관(2007년)으로 선정됐습니다. 형제여! 잘했구려!

허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도체의 등급표시에 따르면 최고의 등급을 1\*\*A(일 플러스 플러스 에이)인데 더 좋은 육질·육량 쇠고기가 출현할 경우 1\*\*A로 계속 나갈 건지? 부르기도 힘들고 표시도 좀 어렵잖아요?

〈소도체의 등급표시 방법(현재)〉

구분		육질 등급					등외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표시	A등급	1**A	1*A	1A	2A	3A	
	B등급	1**B	1*B	1B	2B	3B	
	C등급	1**C	1*C	1C	2C	3C	
	등외	D					

〈개정 건의(안)〉 (개인의견)

구분		육질 등급					등외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표시	A등급	9	6	3	◆	◆	
	B등급	8	5	2	◆	◆	
	C등급	7	4	1	◆	◆	
	등외	◆					

★ 2009.12월 현재 대한민국의 한우 최고등급은 무궁화 9개이다. ★ 우리 축산농가는 향후 무궁화 10개의 등급을 도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호텔등급처럼 '우리 무궁화가 많은 것이 좋은 품질이다' 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보다 알기 쉬운 등급표시로 소비자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외부 필자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